

트럼프 ‘관세 쇼크’ 직격탄 맞은 자동차… 미국 수출 32% ↓

대미 수출 비중 현대차 54·기아 28·한국 GM 85%…부품업체 타격도
4월 수출감소율보다 12.4%p 높아…자동차 업계 “새 정부 재협상 기대”

트럼프발 미국 관세 압박 여파로 기아 오토랜드 광주 등 국내 자동차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들이 대미(對美)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우려했던 관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달 우리나라 전체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급감했으며, 이 같은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 자동차 업체를 넘어 지역 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5월 전체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한 62억달러로 집계됐다. 미국 수출은 18억4000만달러로 32.0%나 줄어들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가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 4월 감소율(19.6%)보다도 12.4%p나 높은 수치다.

현대차와 기아, 한국GM의 대미 수출 비중이 지난해 기준 각각 54%, 28%, 85%에 이르는 상황에서 관세 부담이 커질수록 현지 판매 전략 조정, 재고 조절, 현지 생산 확대 등으로 국내 생산·수출 비중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번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 원인으로 트럼프 관세 외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는 자동차 부품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대응한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현지 재고 소진에 집중하는 대신 미국으로의 수출량을 줄이면서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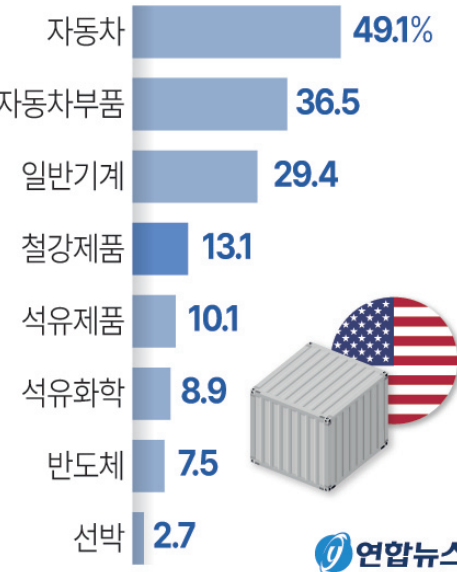
특히 현대차와 기아 등이 미국 현지 재고분에 의존할 수 있는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차선책으로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격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를 차원에서 현대차 앨라배마공장(33만대)과 기아 조지아공장(35만대)을 풀가동하고, 최근 준공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연산 규모를 50만대로 늘려 현지 생산 대수를 작년 미국 판매량(171만대)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세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광우를 포함

한국의 품목별 대미 수출액 비중

2024년 수출액 기준
200억달러 이상 품목 상위순



한 전국 주요 완성차 공장은 물론 부품 공급망과 1·2차 하청업체까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광주 기아차 공장의 경우 수출 비중이 높은 일부 차종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 장기화 시 수출 물량 감소에 따른 가동률 저하, 협력업체 일감 축소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아 오토랜드 등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일단 한미간 관세 실무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미국 측과의 관세 재협상 외에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관세 이슈가 길어질수록 국내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재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여름 필수템 미리 준비하세요”

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2층 ‘베데베로’ 매장에서 모델이 다양한 선글라스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6일까지 베데베로 및 보스 선글라스를 품목별로 30~5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공사비 상승·미분양 증가 등 접약재… 고개드는 건설업 ‘7월 위기설’

영무토건 법정관리행…DSR 규제 확대 앞두고 업계 긴장

광주지역 중견 건설사인 영무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건설업계 ‘7월 위기설’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악성 미분양 증가, 인허가·준공·착공 등 주요 지표 하락이 동시에 발적으로 발생한데다, 다음달부터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까지 예고되면서 자금 유동성마저 경직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은 -6.1%로, 외환위기 시기였던 1998년(-13.2%) 이후 가장 낮다. 통계청 1분기 산업활동동향만 보

더라도, 공사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이 27조12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7% 감소했다. 이는 1998년 3분기(24.2%)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올 들어 4월까지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등 선행 지표도 모두 뒷걸음질 쳤다. 같은 기간 주택 인허가는 22.6% 감소했고, 누적 착공은 작년보다 33.8% 줄었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불황의 깊이는 더 깊다.

특히 올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는 전국적으로 11곳에 이르는데, 지난달 말 법정관리

를 신청한 영무토건이 광주 기반 중견업체라는 점에서 광주·전남 건설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DSR 3단계 규제 시행을 앞둔 7월을 올 상반기 최대 고비로 보고 있다. 수요자 대출 제한이 강화되면 미분양 주택이 더 늘고, 자금 흐름이 막히는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한층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 현장이 줄어들면서 수주 경쟁은 치열해지고, 이익은커녕 손실을 떠안는 사례도 많다”며 “특히 수도권 브랜드 아파트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지방 중견사의 생존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정국 혼란 틈타 유제품·커피·라면·과자까지 무더기 인상

식품·외식업계 60곳 줄인상…새정부, 서민물가 안정책 마련해야

식품·외식업체들이 계엄·탄핵과 조기 대선 등 정국 혼란기를 틈타 제품가격을 대거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서민물가 안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식품·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지난 달까지 최근 6개월간 가격을 올린 식품·외식 업체는 60곳이 넘는다.

소비자 체감상 최근 가장 많이 오른 것은 동서식품 믹스커피로, 반년 만에 두 차례에 걸쳐 20% 가까이 올랐다.

동서식품은 지난달 30일 제품 출고 가격을 평균 7.7% 올렸다. 주력 제품인 커피믹스와 인스턴트 원두커피 가격 인상은 평균 9%에 달한다. 동서식품의 제품 가격 인상은 지난해 11월 15일(평균 8.9% 인상) 이후 불과 6개월 만이다.

동서식품은 재로깅 상승과 환율 부담이 가중돼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로 떨어졌다.

지난달 유제품 가격 인상이 이어졌고, 주류회사도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하이트진로는 테라와 켈리 등 맥주 출고가를 지난달 평균 2.7% 인상했다. 오비맥주는 카스와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 가격을 지난 4월 평균 2.9% 올렸다.

앞서 3~4월에는 식품기업들이 라면 가격을 잇달아 올렸고, 제과업체도 가격 인상 릴레이에 합류했다.

오리온은 지난해 12월 13개 제품 가격을 평균 10.6% 인상했고, 롯데월드푸드는 지난해 6월에 이어 8개월 만인 지난 2월에 가격을 올렸다. 대상은 올해 1월 드레싱류 가격을 23.4% 올리고 후추는 19% 인상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GICON, 호남IS 디지털 신기술 세미나 개최

미래모빌리티와 AI활용 등 강연
실감형 기술 체험 투어도 진행

광우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지난 28일 광주시 남구 송하동 광우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2025 호남IS 디지털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지원하는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GICON이 주관해 개최됐다.

세미나는 ‘넥스트 호남: ICT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광재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본부장의 ‘AI 집적단지 및 국가 데이터센터 소재’를 시작으로, 강양재 경상국립대 교수의 ‘농생명 바이오 빅데이터와 거대 언어모델 활용’, 심상규 아우토크립트 기술최고책임자(CTO)의 ‘미래모빌리티와 AI 활용’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또 세미나 참가자들이 실감형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GCC 스튜디오 투어도 진행됐다.

이경주 GICON 이경주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호남 지역의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공지능과 미래 기술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신기술 확산 등 실증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월드비전, 업비트서 첫 가상자산 매도

법인 가상자산 거래 시작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1일 “국제구호개발비정부기구(NGO) 월드비전이 보유한 0.55이더리움(ETH)의 매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원화로 환산하면 198만원 규모다.

이날부터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국내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금화 목적의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다.

월드비전은 케이뱅크 법인계좌를 업비트 계정 에 연결하고, 기부금으로 수취한 이더리움을 업비트 원화마켓을 통해 성공적으로 매도했다. 두나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등과 가상자산 나눔 문화 활성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두나무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2단계 후속 조치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지원 역시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배민 “‘앱 장애’ 고객·점주·라이더에 보상”

중개이용료 전액면제 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30일 오후 발생한 앱 일부 기능 장애와 관련해 고객과 업주, 라이더에게 보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0일 오후 6시께부터 수심분단 배달의민족 앱에 장애가 발생해 일부 서비스 이용에 오류가 발생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민배달과 가게배달, 포장 서비스 입점 업주에게는 장애 발생 이후 자정까지 들어온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정

액제 광고인 울트라를 이용 업주에게는 약관에 따라 앱 장애로 주문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광고비용의 10배 금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또 앱 장애 시간 배달 관련 기록이 있는 라이더 4만5000여명에게는 1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앱 장애를 겪은 배민 고객에게는 지난 31일 5000원 쿠폰을 지급했다.

쿠폰 지급 대상은 메뉴를 고른 뒤 시스템 장애로 인해 다음 단계인 ‘장바구니’로 들어가지 못해 주문에 실패한 고객 32만6000여 명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174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8	11	14	17	36	39	22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910,619,425		15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6,194,689		85
3	5개 숫자일치			1,494,540		3,196
4	4개 숫자일치			50,000		158,944
5	3개 숫자일치			5,000		2,670,129